



자원봉사 교육을 받고있는 천수천안 자원봉사자들. 이들은 초급·중급 등 단계적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의 질을 높이면서 영역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기북부 불교 중심축

경기 고양·양주

고양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경기도 고양. 1992년 군에서 시로 승격한 이래 급속도의 발전을 이뤘다. 최근에는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이 들어선데 이어 삼송신도시와 고양관광문화단지 등이 들어서게 되고, 바로 인근에 은평뉴타운이 건립된다. 게다가 곳곳에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6월말이면 동국대 일산병원이 문을 열게 된다.

현재의 고양불교는 한마디로 '안정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듯하다. 사암연합회 활동도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고, 사찰들의 포교활동도 크게 흡족을 데가 없다. 게다가 고양불교의 자랑인 자원봉사단체 '천수천안'은 내용과 규모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2002년 고양사암연합회의 10여개 사찰들이 뜻을 모아 창립된 천수천안은 이듬해인 2003년 사단법인이 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리고 지금은 800여 자원봉사자가 국립암센터, 일산노인복지관, 남양주 에덴노인센터, 고양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50여개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게다가 군법당·불교문화·지역사회 지원활동과 수해 및 설해 등 긴급재난구조활동까지 벌이고 있다.

천수천안이 이렇게 광범위하면서도 조직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것은 고양사암연합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10여개 사찰들이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시내에 사암연합회 사무실을 열어 자원봉사자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담당자까지 두면서 천수천안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암연합회가 봉사단체를, 그것도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고양 유일하다.

천수천안의 근간인 사암연합회는 활동 사찰 수가 10여 곳에 불과하지만 상당한 결속력을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종단 간 불협화음이 없는 것도 고양불교의 자랑거리다.

개별 사찰들의 활동도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도심포교를 맡고 있는 통도사 포교당인 여래사와 원각사, 송광사 포교당 정혜사, 광명사 등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심 속 불교를 심고 있다.

대규모 포교당인 여래사(주지 각현)는 청소년회관, 결혼식장, 서점, 소극장(Seense Theater), 방송실 등을 갖추고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정혜사(주지 허운)는 일요법회, 경전반 및 기초입문반, 봉사활동 등 교육-봉사-법회-기도 등으로 이어지는 신형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고양 봉사단체 '천수천안' 조직력 돋보여

양주 사찰별 특성살려 문화·군포교 매진

원각사(주지 정각) 역시 불교대학과 문화강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불교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고, 아파트 단지 주변에 위치한 광명사(주지 대덕)도 지역민들과 직접 만나는 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공격적인 포교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덕양사 역시 안정적인 법회 운영을 통해 고양불교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전통사찰로는 흥국사(주지 대외)의 활동이 단연 돋보인다. 어린이·학생·거사림·합창단 법회 외에 불교중앙대학교와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면서 불교포교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노적사 역시 불교중앙대학교 각종 신형 단체들의 활동으로 지역 포교에 나서고 있고, 성보사도 노인복지와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으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과제도 안고 있다. 우선 시 규모가 계속해 커지면서 이를 따라갈 수 있는 포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다. 또 사암연합회의 활동 사찰 수를 현재의 10여 곳에서 대폭 늘려 활동력을 높여

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스님들은 별로 없다. 고양불교는 지금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양주

양주 불교는 다소 침체돼 있다. 인구 15만명에 사찰 수는 40여 곳으로 그리 적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상 양주시민들의 생활권이 서울에 속해있어 신형활동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암연합회 활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특별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은 한 전체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서 그나마 일부 사찰들은

나름대로의 색깔을 갖고 활동을 펴고 있다. 일요법회, 사경법회, 거사법회 등이 활성화돼 있는 지장사(주지 대운)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때 한문서당을 열고 있으며, 다가오는 8월에는 단기출가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석굴암(주지 도일)은 주말마다 철야기도와 청년회 법회를 통해 불교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대운사(주지 귀영)는 지역·어린이 복지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회암사는 양주가 자랑하는 천년고찰로 현재는 발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대승사, 백화암, 송암사 등이 활동을 보이고 있다.

한영우 기자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자원봉사단체 이끌어

도명 스님 (고양덕양사 주지·고양사암연합회장)

2003년부터 고양불교사암연합회장과 고양불교가 자랑하는 자원봉사단체인 사단법인 '천수천안'의 초대 이사장을 맡아 고양불교를 이끌고 있다. 도명 스님의 가장 큰 소망은 천수천안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는 것이다. 이사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천수천안 봉사활동에도 직접 참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천수천안 활동을 권할 정도로 열의가 높다.



어 놓았다. 약사전, 종각, 요사채, 일주문, 종각을 건립하고 현재는 대웅전 불사를 마무리 중에 있다.

무량 스님은 고양시에 위치한 북한산 소재 21개 사찰 모임인 '북한산사암연합회' 회장을 4년째 맡고 있으면서 1년에 한 두 차례 지역 어르신 경로잔치를 여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 포교의 중심 전법도량

대오 스님 (고양흥국사 주지·고양사암연합회장)

고양불교 포교의 중심축인 흥국사를 명실상부한 전법도량으로 가꾸었다. 대오 스님은 4년 전 주지로 부임한 이래 어린이·중고생·거사림·합창단 법회를 만들고, 불교중앙대학교와 템플스테이를 여는 등 고양불교 포교와 신도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군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고양경찰서 불자회를 창립, 경승실장도 맡고 있다.



신도교육에 헌신...교화활동도

종후 스님 (고양노적사 주지)

노적사 주지를 맡은 지 30년이 넘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포교를 최고의 화두로 삼고 있다. 종후 스님은 불교중앙대학교 강의를 직접 할 정도로 신도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영등포교도 소 교화위원으로 있으면서 경전과 태이프 등의 법보시 활동도 하고 있다. 통일 불교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현재 평불림 이사를 맡고 있다.



다채로운 문화포교 원력

대운 스님 (양주지장사 주지·양주사암연합회장)

대운 스님은 문화포교에 관심이 많으며, 시대 변화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찬불가 법회, 사경 법회, 산사음악회, 한문서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양주불교 신행을 이끌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아소카왕이 건립한 산지대탑과 같은 형태의 19m 규모의 반야보탑을 낙성, 지장사를 수행·포교·기도 도량으로 자리매김 시켰다.



회향하는 삶 강조...복지포교 펼쳐

해런 스님 (양주대원정사 주지)

해런 스님은 회향하는 삶이 아름답다고 신도들에게도 늘 강조한다. 대웅전과 지장대불 불사를 진행 중이며, 특히 석불로 모셔지는 지장대불은 6m가 넘는 큰 규모다. 15년 간 15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 어르신 위안잔치를 열어왔다. 단 하루도 기도를 거르지 않을 정도로 신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 자생력 있는 사찰운영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중 청마오에 한국사찰 건립

병진 스님 (고양정안사 주지)

정안사는 불교계의 대표적인 봉안당을 갖춘 사찰. 3만여 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타종교인들을 위한 별도의 납골공간도 마련해놓았다. 병진 스님은 2004년에 중국에 정착한 한국인들을 위해 중국 청마오에 '정안사'를 지었으며, 한국인들의 섭리를 중국 정안사 인근에 세우겠다는 발원을 하고 있다.



경로잔치 등 불자화합 앞장

무량 스님 (고양무량사 주지)

27년 전 4.5평짜리 법당 하나에 불과했던 무량사를 바꾸

천일기도 잇따라 세차례 봉행

도일 스님 (양주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은 청빈한 수행자였던 은사 스님의 뜻을 이어 석굴암을 청정기도도량으로 가꾸기 위해 1998년부터 올해 4월까지 1천일기도를 두 차례나 했으며, 또다시 1천일기도에 들어간다. 독거 어르신 등을 후원하는 의정부 '좋은 모임회' 이사와 의정부교도소 교화위원을 맡고 있다.



10년여 봉사 주력...가족법회 개설

현도 스님 (고양결성사 주지)

1995년 일산구 식사동 일원에서 3000여 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김장사 창건불사를 시작, 현재는 불사를 거의 끝낸 상태다. 지금까지 불사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때가 됐다고 현도 스님은 말한다. 7월부터 가족법회를 신설하고, 가을에는 불교중앙대학교도 개설할 방침이다.



지역특성 살려 도심 포교

허운 스님 (고양정혜사 주지)

허운 스님은 2003년부터 정혜사 주지를 맡아 도심포교에 주력하고 있다. 젊은 스님답게 도심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는 소신이 확고하다. 지역 환경에 부합하는 포교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고 싶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군법사 출신으로 군 포교에도 관심이 많다.



'천수천안' 봉사활동의 주역

박유아 단장(천수천안)

박유아 보살은 2004년부터 천수천안 단장을 맡아 조직을 잘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수천안 1기생으로 국립암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즐겁다는 박 보살은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일일차집을 11월에 열 계획이다.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 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SHOP 051)806-5587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